



제32회 UN 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문명과 고등교육 큰 배움을 찾아서

CIVILIZATIONS AND HIGHER EDUCATION
IN SEARCH OF GREAT LEARNING

2013년 9월 25일(수)~27일(금)
경희대학교



취지

BEAUTIFUL
AFFLUENT
REWARDING



21세기 초반, 우리는 미증유의 문명현상과 마주하고 있다. 기존의 프레임으로는 인간과 세계의 급격한 변화를 읽어낼 수가 없게 됐다. 기후변화에서부터 에너지와 식량의 고갈, 자본의 세계화, 문명 간 갈등은 물론 디지털 정보통신 혁명에 이르기까지 지구적 차원에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전환기에 대학의 오늘을 성찰하고 고등교육의 미래를 전망하는 일은 복합적, 총체적, 장기적 시각을 요구한다. 인간을 발명하고 문명을 견인해온 대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문명을 구현하는 미래대학은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창학이념 ‘문화세계의 창조’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64년간 교육, 연구, 실천을 결합해온 경희대학교는 연구와 교육 역량의 지구적 탁월성을 추구하고왔다. 경희의 전통인 ‘학문과 평화’는 더 큰 학문을 더 큰 실천과 만나도록 주선하는 미래비전이기도 하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평화에 기여하지 않는 학문은 진정한 학문이 아니다. 문명의 더 나은 미래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배움은 진정한 배움이 아니다.

더 큰 질문, 더 큰 배움이 절실한 때다. ‘Peace BAR Festival 2013’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학의 근원적 의미를 재정의하고, 미래사회가 요청하는 대학다운 대학의 구체적인 상(像)을 그려보고자 한다. ‘문명과 고등교육: 큰 배움을 찾아서(Civilizations and Higher Education: In Search of Great Learning)’라는 대주제 아래 국제회의, 학생 포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Peace BAR Festival 2013’은 정신적으로 아름답고(spiritually Beautiful), 물질적으로 풍요하며(materially Affluent),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humanly Rewarding) 인류의 미래를 꿈꾸는 학술과 실천의 창의적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다.



PEACE BAR FESTIVAL 2013
Civilizations and Higher Education

개관

개회식

문명과 고등교육: 큰 배움을 찾아서
Civilizations and Higher Education:
In Search of Great Learning

기념 음악회

가면무도회

Un Ballo in Maschera



국제회의

라운드테이블

문명과 고등교육:
문명전환기 대학의 도전과 책무

Civilizations and Higher Education:
Challenges and Responsibilities of University
in Times of Civilizational Transformation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

모두가 만족하는 평화가 가능한가?: 인간안보

How Is It Possible to Achieve Peace That Can Satisfy
Everyone?: Human Security



프로그램

2013년 9월 26일(목)

<p>11:00~12:00</p> <p>평화의 전당</p>	<p>개회식</p>	<p>문명과 고등교육: 큰 배움을 찾아서 Civilizations and Higher Education: In Search of Great Learning</p> <p>세계평화의 날 개관 축하 영상메시지 환영사 축하 공연</p> <p>권기봉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장 반기문 UN 사무총장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 경희대학교 음악대학</p> <p>(사회 정종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p>
<p>15:00~17:30</p> <p>본관 대회의실</p>	<p>국제회의 라운드테이블</p>	<p>문명과 고등교육: 문명전환기 대학의 도전과 책무 Civilizations and Higher Education: Challenges and Responsibilities of University in Times of Civilizational Transformation</p> <p>기조 발표</p> <p>G.K. Chadha President, South Asian University Civilizations and Higher Education: Augmenting Capacities to Reach 21st Century Frontiers</p> <p>Dzulkifli Abdul Razak Vice-Chancellor, Albukhary Inter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in Times of Civilizational Transformation: Challenges and Responsibilities</p> <p>패널 토론</p> <p>이진우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석좌교수 이한구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석좌교수 박한규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장 어윤일 경희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p> <p>(사회 허우성 경희대학교 철학과 교수)</p>
<p>15:00~17:30</p> <p>강화 평화빌리지</p>	<p>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p>	<p>모두가 만족하는 평화가 가능한가?: 인간안보 How Is It Possible to Achieve Peace That Can Satisfy Everyone?: Human Security</p> <p>개회식 학생 평화 토론</p> <p>한반도의 평화와 대학생의 역할</p>

2013년 9월 27일(금)

<p>09:30~17:00</p> <p>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p> <p>평화 포럼 I</p> <p>평화 포럼 II</p> <p>강화 평화빌리지</p>		<p>모두가 만족하는 평화가 가능한가?: 인간안보 How Is It Possible to Achieve Peace That Can Satisfy Everyone?: Human Security</p> <p>기조 발표 인간안보(Human Security)</p> <p> 빈곤안보 김남유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동렬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p> <p> 환경안보 박지혜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과</p> <p> 인권안보 박희서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남주헌 경희대학교 스페인어학과</p> <p>특별 강연 인간안보 박한규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장</p> <p>심층 토론 인간안보를 통해 바라본 평화에 대한 대학생의 역할</p> <p>학생선언문 작성 및 낭독</p>
--	--	--

2013년 9월 25일(수)~27일(금)

<p>19:00~22:00</p> <p>평화의 전당</p>	<p>기념 음악회</p>	<p>가면무도회 경희대학교 음악대학</p>
----------------------------------	---------------	----------------------------

※ 행사 전 일정은 경희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웹캐스트됩니다(www.khu.ac.kr/webcast).
행사 홈페이지 <http://pbf.khu.ac.kr>



개회식

'Peace BAR Festival 2013'은 대학의 근원적 의미를 재정의하고, 미래사회가 요청하는 대학다운 대학의 구체적인 상(像)을 그려보고자 한다. '문명과 고등교육: 큰 배움을 찾아서(Civilizations and Higher Education: In Search of Great Learning)'라는 대주제 아래 국제 학술회의, 학생 포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Peace BAR Festival 2013'은 정신적으로 아름답고(spiritually beautiful), 물질적으로 풍요하며(materially affluent),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humanly rewarding) 인류의 미래를 꿈꾸는 학술과 실천의 창의적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다.

일 시 2013년 9월 26일(목)

장 소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

세계평화의 날 개관	권기봉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장
축하 영상메시지	반기문 UN 사무총장
환영사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
축하 공연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사회 정종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회의 라운드테이블

문명과 고등교육: 문명전환기 대학의 도전과 책무

Civilizations and Higher Education: Challenges and Responsibilities of University in Times of Civilizational Transformation

불확실성과 위협으로 충만한 21세기의 문명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해질 수 있는가? 현재 진행 중인 거대한 문명적 전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은 그 주된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자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 21세기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은 어디로,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가? 이를 위한 성찰적 지식은 어떻게 구성되고, 교육과 연구의 방법론은 어떻게 확립되어야 하는가? 라운드테이블은 21세기의 문명적 전환 상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위상, 역할 및 방법에 대해 성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일시 2013년 9월 26일(목)

장소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

<p>기조 발표</p>	<p>Civilizations and Higher Education: Augmenting Capacities to Reach 21st Century Frontiers G. K. Chadha President, South Asian University</p> <p>University in Times of Civilizational Transformation: Challenges and Responsibilities Dzulkifli Abdul Razak Vice-Chancellor, Albukhary International University</p>
<p>패널 토론</p>	<p>이진우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석좌교수 이한구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석좌교수 박한규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장 어윤일 경희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p>
<p>청중과의 대화</p>	

(사회 허우성 경희대학교 철학과 교수)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

모두가 만족하는 평화가 가능한가?: 인간안보

How Is It Possible to Achieve Peace That Can Satisfy Everyone?:
Human Security

분단의 현장, 강화도에서 펼쳐지는 예술행동, 청년행동

'Peace BAR Festival 2013'은 문화예술 축제, 나눔과 기여 프로그램과 함께 더욱 풍성해진다. 올해에는 특히 경희대학교 미술대학과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이 참여해 'Peace BAR Festival'의 취지를 심화, 확산시키고 있다. 미술대학의 '지구평화를 꿈꾸는 예술행동'은 스무 살 대학생들이 남북분단이라는 지역적 비극에서 출발해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인류평화, 나아가 '단 하나뿐인 지구'의 미래를 상상하는 프로그램이다. GSC는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평화가 가능한가?'라는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대학생들은 포럼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항구적인 인류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청년 학생들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할 것이다.

일시 2013년 9월 26일(목)~27일(금)

장소 강화 평화빌리지

9월 26일(목)	개회식		
	학생 평화 토론	한반도의 평화와 대학생의 역할	
9월 27일(금)	평화 포럼 I	기조 발표	인간안보(Human Security)
		빈곤안보	김남유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동렬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환경안보	박지혜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과
		인권안보	박희서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남주헌 경희대학교 스페인어학과
	특별 강연	인간안보	박한규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장
	평화 포럼 II	심층 토론	인간안보를 통해 바라본 평화에 대한 대학생의 역할
	학생선언문 작성 및 낭독		



기념 음악회

가면무도회

Un Ballo in Maschera

스웨덴 왕 구스타프 3세 시대의 역사극인 '가면무도회'는 등장인물마다 고유한 캐릭터와 각자의 아리아를 가지고 있어 극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사랑과 우정, 해학 등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절세의 작품이다.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음악대학 학생들과 교수, 무용학부 학생들, 경희초등학교 중창단 등 많은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공연은 경희 구성원들 간의 교류와 화합의 장,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교육, 학습, 문화의 장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일 시 2013년 9월 25일(수)~27일(금)

장 소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

총감독	김미애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장	
예술 총감독	이아경 경희대학교 성악과 교수	
지휘	백윤학	
연출	유희문	
출연	경희대학교 성악과 경희대학교 성악과 합창단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경희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 경희초등학교 중창단
주관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세계평화의 날 제정 배경

세계평화의 날/해는 1981년 경희대가 제안하고 UN이 제정하면서 정례화되었다. 1981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IAU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제6차 총회에서 조영식 경희대 총장은 UN이 세계평화의 날/해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IAUP는 이 같은 내용의 코스타리카 결의문을 채택해 UN에 전달했고, UN은 그해 11월 30일 개최된 제36차 UN 총회에서 세계평화의 날/해를 제정했다.

당시 UN 총회 결의문(Resolution 36/37)에는 세계평화의 날은 “모든 국가와 시민이 평화의 이상(理想)을 기념하고, 고양시키고자” 제정되었으며, “모든 UN 회원국, 산하기관과 기구, 지역기구, NGO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UN과의 협력하에 특히 교육적 수단을 통해 세계평화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것”을 권유한다고 쓰여 있다. UN은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2001년부터는 매년 9월 21일)로,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제정했다.

냉전체제의 완화가 인류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IAUP의 생각은 시의적절했다. 세계평화의 날/해가 제안되던 무렵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던 동서 양 진영은 세계평화의 해가 공표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1986년 1월 1일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가 상대 국민을 향해 신년 평화의 메시지(New Year's Messages of President Reagan and General Secretary Gorbachev, January 1, 1986)를 전달하면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양국이 추진해오던 군축회담도 진행되면서 인류는 평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핵무기 감축안이 마련되고 지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냉전체제의 긴장이 완화되었다.



국제회의 연혁

경희대학교는 1981년 제36차 UN 총회에서 제정된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1982년부터 매년 국제회의를 개최해왔다. 올해로 32회를 맞이하는 국제회의의 역대 주제는 다음과 같다.

1982~1990	1982	현대사회의 위기와 국제평화
	1983	세계평화: 그것은 가능한가
	1984	UN을 통한 세계평화
	1985	UN: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986	국제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 모색
	1987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1980년대 후반의 한반도
	1988	동북아시아와 21세기의 한국, 중국, 일본의 역할
	1989	동서 갈등을 넘어선 평화: 1990년대 동북아의 안위와 세계평화
	1990	동서 관계의 변화와 평화로운 신국제질서의 모색
	1991~2000	1991
1992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신국제질서
1993		동북아시아의 평화: 지역협력을 향하여
1994		도덕과 인간성 회복
1995		관용, 도덕과 인간성 회복
1996		21세기, 세계공동체를 향한 평화전략과 UN의 역할
1997		21세기의 비전과 현실: 동아시아의 역할
1998		새로운 천년을 향한 인류의 비전: 현대문명을 넘어서
1999		21세기, 평화는 가능한가
2000		21세기의 글로벌 거버넌스
2001~2010	2001	문명 간 대화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2002	Pax UN을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2003	네오르네상스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2004	평화를 위한 긴급 과제: 테러리즘의 극복
	2005	이념 이후의 시대: 21세기 대안문명을 말한다
	2006	21세기 보편의 재발견: 자유와 평등을 넘어서
	2007	전환적 도전: 새로운 인성과 공동체를 찾아서
	2008	미래문명, 미래대학: 지식과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2009	경희 평화 워크숍
	2010	몸과 문명: 나는 몸이다
2011~2012	2011	몸과 재앙: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2012	인간, 정치, 문명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KYUNG HEE UNIVERSITY